

나에게 아비라 기도는 (상)

김두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지금 내 처는 백련암을 향해 달리고 있다. 지금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며 백련암을 찾아가고 있다. 세상살이에 끔달리면서도 때가 되면 백련암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부처님 말씀에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또한 정법(正法)을 만나기 어렵고, 좋은 도반을 만나기 어렵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 이유는 나는 이미 사람의 몸을 받았으며 부처님을 만났고, 대한민국 수많은 불제자 가운데서 성철 큰스님에게 심원(心源)이라는 불명을 받으면서, 정법 공부를 했고, 백련암으로 삼천배를 하도록 이끌어주신 진여심, 대원행 보살님을 만났으니 말이다.

16년 전 여름, 나는 부산 범어사 정련암에서 오만한 나의 탐진치로 인해 잃어버린 재산과 사업의 재기를 원하면서 시커렇게 타는 가슴을 안고, 어설피고 서툴지만 한 모습으로 무턱대고 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목격히 지켜보시던 중년의 진여심 보살님이 어느 날 나에게 사과 한 조각을 건네며 다가왔다.

“처사님, 무슨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시려면, 해인사 백련암이라는 곳에 성철 큰스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삼천배를 하고난 후 친견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 나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솔직히 삼천배라는 절의 숫자가 얼른 이해도 되지 않았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데 108배도 아닌 삼천배를 한다는 것이 당시의 내 의식수준으로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 같았고, 광선적인 종교집단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내 나름대로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매일 정련암에 가서 절을 하고 있었고, 무리하게 절을 해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처음에는 어설피고 서툴지만 하던 자세가 차츰 모양새가 갖추어져 가고, 절 횟수도 늘려 갈 수 있었으며, 조금씩 심리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여유도 생기기 시작했다.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불교서점에 들러

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저분들은 어떤 생각과 간절함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복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을 때 까지 절을 할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한참 동안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복잡하던 내 심경으로는 그 의문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나의 뜻한 바대로 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진여심 보살님이 전화로 “오늘 오후에 좀 만날 수 있겠느냐”는 말과 함께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요?”라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사업 실패후 재기 꿈 다지며 절 찾아 기도

삼천배 경험하며 성철스님 친견 기다려

절하면 할수록 조금씩 변화되는 나 발견

불교관련 서적을 몇 권씩 사서 보면서 불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과 열정만이 나를 지배한 채, 그 해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땀이 뻘뻘 땀을 범당 밖으로 나와 말리면서 자판기의 커피를 마시는 나에게 진여심 보살님이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보살님은 범어사에서 100일 동안 1000배와 능엄주 30독씩 하는 기도를 오늘 회향하고 가신다면서, 처사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도반 한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커피를 한잔 빼 드리고 방당으로 올라

열떨결에 “예”라는 대답을 하고 약속장소로 나가니, 대원행 보살님과 내 나이포레의 여류 거사님이 같이 나와 계셨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원행 보살님께서 여류 거사에게 같이 좀 갔다들 곳이었다며 일하였다. 나 역시 엉거주춤 영문도 모르고 뒤를 따라가니 법복(승복) 맞춤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들어서자 대원행 보살님이 손수 잭빛으로 물들인 무명천을 내 놓으시며 나를 가리키면서, “저 처사님 법복 좀 맞춰 주세요”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간 ‘남자가 무슨 법복을 입나?’ 하고 생각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법복 입은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기에 법

복이란 보살님들이나 절에 갈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순식간에 법복집에서 옷을 맞추고 나오자 여류 거사가 나에게 말했다. “백련암에 삼천배 기도하러 가실 거죠? 저도 갈 거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백련암에서는 거사들도 법복을 입어야만 삼천배 기도를 할 수 있고, 성철 큰스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복을 찾는 다음날 백련암으로 삼천배 기도를 가는 일정이 나도 모르게 잡혀 있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인연이 백련암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열떨결에 백련암에 따라와 삼천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지옥훈련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같이 온 도반들이야 모두 오랜 세월동안 삼천배를 해 온 경력이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나는 아니었다. 법당 마루 바닥에 기도하는 좌복을 포함하여 내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 밖을 나가지 않고서 4시간 안에 삼천배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산을 해보니 한 시간에 약 800배의 절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물러설 곳 없이 만들어진 상황! 기도 잘하라고 노보살님이 해 주신 법복을 입고, 선배 도반들이 그려준 동그라미 안에서 무조건 해내야 하는 삼천배 기도가 드디어 내 인연공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몸은 이미 나의 생각을 벗어나서 움직이고,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면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땀은 그동안 나를 돌아보지 않고 욕심으로만 살아온 세월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략 2700배를 넘어서서 무릎부터는 몸의 감각이 하나씩 마비되고, 나의 의지와 생각이 배제된 로봇 같은 무의식의 세계가 되어서 절을 하고 있었다.

지금껏 나를 지배하고 있던 돈과 명예와 사업, 그리고 온갖 세속의 인연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서 날아가고 있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도반들의 원력으로 시작된 삼천배 기도가, 절의 횟수가 더해가면서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의 마음은 이 절을 다해서 빨리 삼천배가 끝나고 성철 큰스님 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겨있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한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 없는 현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리니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리니.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신간! 고혈압 동맥경화 걱정없다

몸에 지니기만 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이책속에 귀하의 평생 건강이 있습니다. 100쪽 값 6,000원

- 죽음을 부르는 탁한피 당신의 피는 안전한가
- 팍팍한 혈관 확 뚫어라
- 심혈관 질환의 주범, 고지혈증
- 고지혈증의 원인과 증상
- 증이라고 무시했다면 큰코다친다.
- 한국인이 더 위험
- 심장병 환자엔겐 시간은 생명
- 뇌졸중 주범은 뇌경색
- 몸에 지니기만 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 북한 의학박사가 발명한 방해석의 신비
- 18년간 1만명이상 임상시험
- 심, 혈관질환 치료율 98.8%
- 당뇨 합병증예방, 치료한다.
- 21세기 인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학적 대발명
- 38년간 고생하던 두통이 하루만에 없어졌다.
- 불면증이 4일째부터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
- 두통과 메스꺼움이 7일만에 없어졌다.
- 편두통에서 벗어났다.
- 두통으로 하루 8알씩 먹던 진통제를 끊게 되었다.
- 신우신염이 좋아졌다. - 이명증이 없어졌다.
- 하지 정맥류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 손, 발 저림이 하루 밤 사이에 깨끗
- 혈압 200~97이 3일만에 120~70으로
-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피가 맑아졌다.
- 소변에 혈흔이 나타나지 않는다.
- 극심한 생리통이 없어졌다.
- 25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안 먹게 되었다.
- 숨이 차고, 불안, 가슴두근거림이 없어졌다
- 심장 압박에서 벗어났다.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 02)3436-3206~7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히려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히려) 농협 601175-52-016521

주요 수록내용

- 공화 이야기
성기가 맑아 만들어
땀이 미쳐가고 있어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저제와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행수술 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겁사님
임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 이야기
남자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공합
▶ 달로 보는 공합 ▶ 시(時)로 보는 공합
▶ 팔자로 손(상성) 보는 법 ▶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곡(영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